

경기침체 따른 어려움 가중

향후 환경오염 대응책 마련 추진

1. 서론

가볍고, 사용이 용이하며 제품 보호의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음료용기의 대표체 중 하나가 된 금속캔은 지금껏 소비자들에게 널리 사랑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굳이 음료용기 뿐 아니라 그동안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왔던 포장재는 환경이라는 적수를 만나 폐기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당국의 정책면에서나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서나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현재 포장업계는 그간 재활용에 대해 스스로 깨닫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음은 분명 인지하여야 할 것이며 잘못된 규제안과 인식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재활용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로써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제관업계 동향

모든 음료용기는 음료시장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금속캔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료캔용기

(표) 97 국내제관 판매실적 비교

(단위 : 백만관)

구분			96 판매실적	97 판매실적	증감	
음료관	알루미늄	2Pcs	맥주관	657	617	
			탄산관	492	636	
			기타(전통 및 스포츠음료)	22	220	
			계	1,171	1,473	302
	스틸	2Pcs	맥주관	1	10	
			탄산관	887	1,073	
			기타(전통 및 스포츠음료)	289	479	
			계	1,177	1,562	385
		3Pcs	탄산관	84	77	
			커피관	519	357	
주스, 전통음료 및 기타	2,222	1,368				
계	2,825	1,982	△843			
합계			5,173	5,017	△156	
통조림관	스틸	수산물(참치 및 기타 수산물)	553	512		
		농산물	105	116		
		축산물	27	28		
		합계	685	656	△29	
미술관	스틸	분유관	64	58		
		제약관 및 기타	48	40		
		합계	112	98	△14	
에어졸관	스틸	에어졸 및 부탄가스	342	327	△15	
잡관	스틸	1~20l 관	150	145	△5	
총계			6,462	6,243	△219	

자료제공 :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지난 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음료시장은 롯데칠성음료, 한국코카콜라와 함께 음료업계를 이끌어오던 해태음료가 무리한 설비투자에 의한 부도와 모그룹의 해체로 인해 한 축을 무너뜨리면서 어려움이 가시화되었다.

현재 해태음료는 다른 업체로의 매각을 추진 중이며 이와 동시에 주 생산품목을 탄산음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새로운 품목에 대한 개발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음료시장의 침체로 인한 어

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부터 지속되어 오던 음료업계의 어려움은 98년도 상반기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큰 홍수피해가 있었으며 그다지 덥지 않은 여름을 보내었다.

기상과 큰 관련이 있는 음료업계의 경우 올 상반기 전반적인 침체기를 맞았다.

음료시장의 어려움 속에서 음료용기의 주를 이루고 있는 유리용기와 PET용기, 그리고 금속캔의 경우 신제품 개발 및 재활용을 위한 체계마련에 주력해 왔다.

유리용기나 PET용기의 경우 소형병 등 새로운 형태의 용기를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을 파고들었으며 금속캔의 경우 익스펜디드 캔이라 불리는 외형상 곡선형의 캔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캔은 외형이 특이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지만 제조단가가 비싸고 공정시간상 늦어 아직까지 국내시장에서 정착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제관생산업체는 삼화제관의 화의신청, 영풍제관 등 큰 업체의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두산제관의 경우 모그룹의 구조조정에 의해 두산유리와 합병, 두산포장으로 거듭나면서 그 규모를 축소할 실정이다.

98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큰 업체들 외에도 소규모업체들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해 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환경호르몬 검출 시비로 또 한번의 태풍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비는 캔용기의 도료로 사용되고 있는 에폭시수지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A가 검출된다는 보도가 되면서 확산되었다.

제관업계는 현재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확실한 근거없이 편중된 내용만으로 보도된 것이라면서 특별한 대응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 자료수집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제관업계 불황에 환경호르몬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식품용기가 환경호르몬 검출논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올해 말경에는 제관의 환경호르

몬 검출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업계는 환경호르몬으로써 의심의 여지가 있는 비스페놀-A의 검출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호황이라는 특수를 누리던 업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그간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국내 제관업계는 더욱 많은 어려움의 무게를 지고 있다.

신제품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른 음료 용기에 비해 다양성을 가질 수 없고, 재활용이 다른 용기에 비해 비교적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환경호르몬이라는 복병에 의해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 캔 압축기의 개발, 재활용에 대한 홍보 전략, 그리고 익스펜디드 캔 등의 신제품 개발 등 다각적인 불황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음료시장의 경우 기후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또한 한 시장을 세 종류의 포장재가 나누고 있는만큼 신제품과 재활용에 대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금속캔의 경우 수거체계 및 재활용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환경호르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 군소 업체들이 정리되고 있는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관시장의 안정을 위한 업체간의 협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

윤지은 기자